

시선

사설

본래 목적 잊지 말라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가 총장 선출제 교섭을 위해 대평의 내부에서 새 비상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에 총장 선출제가 구성원 갈등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과 관리위원회 구성 등 대학본부, 법인과 구성원 간 논의도 여전히 불합되지 않은 가운데, 구성원 간 갈등이 새로 불거져 총장 선출제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 총장 선출제는 지난해 지닌 논의를 거쳐, 의료원까지 포함한 학내 구성원 대표 단체 대부분이 참가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내놓은 결과다. 새 학기 들어 법인이 내놓은 규정 초안을 두고 문과대학·외국어대학 교수들은 범대위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평의에서 대평의가 공식 구성원 대표기구라는 점을 들어 ‘대평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 소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범대위에 참여했지만 대평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구성원 단체는 대평의의 이러한 결정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평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구성원 대표기구이고, 시작부터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끌어 왔다. 엄연히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는 기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대평의를 구성하는 교수회와,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구성원 단체 대표자가 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됐으니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도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범대위의 존재도 무시할 순 없다. 비록 대학 본부의 중재를 계기로 구성이 진행됐고, 총장 선출제 논의를 위한 임시기구라고는 해도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여했다는 거öger적 의의를 지닌다.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해 하나의 총장 선출제 합의안을 이끌어 낸 주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총장 선출에 걸릴 시일을 고려하면 오는 5월 개교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총장을 뽑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힘들다. 구성원 갈등으로 일어난다면 규정이 초안에서 지적된 독소 조항처럼, 법인의 의도대로 구성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안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모든 노력과 의지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평의와 범대위 모두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총장 선출제를 두고 긴장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해서다. 이미 지난해 총장 선출제에 어떤 단체가 참여하느냐를 두고 내용을 겪었고, 이를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대평의가 되었던 범대위가 되었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기 바란다. 구성원이 의견을 모아 법인과 대화해야 한다. 그리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평의가 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단체까지 포용할 것인지,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대위는 대평의가 가진 교유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며 의견 조율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칫 구성원 간 갈등이라는 옆길에 빠져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 삼았던 목표를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대학은 지금

대학가는 봄맞이

캠퍼스 정리정돈 중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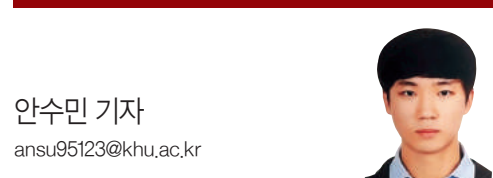
서울대 자산운영과가 건물명 일원화 작업에 들어갔다.(등본 상 건물명 갱신된다/대학신문, 2019.3.31.) 그간 구성원이 부르는 통칭과 건축물대장 등본 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내비게이션으로 찾기 곤란하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등본 상 건물명은 처음 등록된 이후 건물 용도나 명칭이 바뀌어도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서울대는 조사를 통해 등본 상 이름을 통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인촌로’가 ‘고려대로’로 바뀌었다.(‘인촌로’가 아닌 ‘고려대로’, 3월 28일부터 적용/고대신문, 2019.3.31.)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



이 주의 주제 - LINC+ 사업

LINC+ 사업, 마지막 ‘섬세함’을 위해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름도 생소했던 사업이었다. ‘LINC+ 사업(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학내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 2017년이였다. 학교를 스쳐갔던 수많은 국고 지원 사업처럼 그저 또다시 흘러가고 말 것이라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와 닿았다. LINC+ 사업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지난 1차년도에는 사업기간 동안 6개 지역특화산업 중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주변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오픈캠퍼스는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사업 이전인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떠올린다면, 우리학교는 이러한 취업률, 현장실습 등의 지표가 대학 위상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후 LINC+ 사업의 지표 달성을 기반으로 이듬해 같은 대학평가에서 6위를 달성할 수 있었고, 유지취업률은 2017년 24위에서 2018년 9위로 올라섰다. 변화는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LINC+ 사업만으로 학교가 발전을 이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뚜렷한 지향점을 심어준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통과’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사업 3년차 ‘완숙’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은 조금씩 쌓여온 문제들의 적층이었다. 일례로 이번 단계의 핵심 성과지표에서는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건수와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가 각각 47.8%, 86.1%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달성율을 보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학내 추진 중인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보다 논문 작성을 선호하여 발생한, 일종의 ‘관행’이었다.

융합전공의 실효성 문제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문제다. LINC+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인 융합전공은 많은 참여자들이 1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준비한 사업이었지만, 정작 행정 처리의 복잡함과 홍보 방식 미흡 등이 완성을 가로막았다. 이밖에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중장기 사업은 이미 그 기간적 특성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양새다.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힘이 실리지 않으면 무계중심을 잃을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었다. 앞서 쌓아온 성과에 비추었을 때, 결국 모든 문제들이 일부의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섬세함’을 완성할 차례다. 앞서 누려온 효과만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관심이 온전히 전지표를 유지시켰을 때, 효과는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다.

한 후 성북구와 항일독립지사 선양단체, 고려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작년 8월 도로명 ‘인촌로’ 직권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고려대로’로 도로명 변경을 결정했다. 성북구청은 ““고려대로”라는 도로명이 우리 사회 친일청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회는 지난달 16일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휴연구역 폐지를 공고했다.(GN관 휴연구역, 결국 폐지/서강학보, 2019.4.1.)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경제학부 학생회는 “GN관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많은 학우가 담배연기와 냄새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경제학부 학생회는 새 휴연구역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중앙대 양 캠퍼스 강의실에 400대 가량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진행된다.(공기청정기로 답답한 강의실 숨통 뚫는다/중대신문, 2019.4.8.) 공기청정기는 ㈜웅진코웨이가 기증한다. 대학본부는 “추가 필요한 수량은 정식 절차를 거쳐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클린캠퍼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캠퍼스 문

화 조성과 안전, 비폭력·비음주 등을 지향하는 캠페인이다.

한국외대 서울캠에 남학생 휴게실이 마련됐다.(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남학생 휴게실 마련/외대학보, 2019.3.27.) 남학생 휴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남학생, 여학생 휴게실 모두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비품을 더 확보해 나가겠다”고 학생복지에 힘을 것을 약속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E-House(이하우스) 301동 지하식당에서 누수 사고가 재발했다.(이하우스 수난시대… 잦은 누수 사고에 학생들 울상/이대학보, 2019.4.1.) 완공 후 지난 3년간 이하우스 누수 사고는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처는 누수의 주원인으로 ‘온수 및 배관 연결부의 탈락’을 꼽았다. 이화여대 측은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전수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관리처 안전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대림건설 측에서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조치를 하기로 사후 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잊어야 한다는 건

세시봉

김지원 (기자)



지난 2014년 새까만 바다가 세월호를 삼켰다. 국가적 비극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참사였다. 속보와 오보가 취재 열기 속에 뒤섞였다. 마침내는 ‘국가적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국가적 트라우마는 취재 열기와 함께 이내 자취를 감췄고 지금 우리는 세월호 5주기를 맞는다.

5년이라는 시간에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유가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다. 참사 당시 뉴스에 비친 유가족은 슬픔을 넘어 비통한 모습이었다. 그 때문일까, 우리에게 유가족은 언제나 ‘슬픈 사람’의 프레임으로 다가왔다.

슬픔이 무너지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슬픔 속에서만 살기엔 지독히 긴 시간이였다. 그래서 유가족은 눈물 대신 슬픔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고,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왁자지껄 웃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족을 마냥 슬픈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시각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감정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슬픔’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할 때

몇 해 전 친구들과 함께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에 방문했다. 한 남자가 유난히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안녕하세요, 누구 아빠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예상치 못한 소개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괜찮아요. 많이들 놀라세요”라며 또 웃어보였다. 내게 내재되어 있던 프레임이 빚어낸 결과였다.

지금도 세월호 기사 밑에서는 유가족들의 태도를 놓고 댓글 공방이 심심찮게 펼쳐진다. 유가족의 분노에는 “보상금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며, 웃음에는 “웃음이 나오냐”며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유가족에게 맞대로 씌운 프레임이 불러온 결과다. 댓글 작성자에게 유가족은 그저 슬퍼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다른 감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게 두렵다”던 유가족의 말은 결코 엄살이 아닌 현실이다.

프레임에 씌운 우리는 은연중에 참사 후 남겨진 사람 모습을 상정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유가족에게 프레임을 씌운다. 우리가 씌운 프레임은 유가족들의 하나뿐인 표정, 슬픔이 되어 다른 감정을 억압한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다.

웃음을 만병통치약이라고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약발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유가족에게 웃음은 치료제보다는 진통제와 같은 게 아닐까 싶다. 몇 년 전 목포 신항에서 만난 그의 웃음을 순수히 바라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진통제를 돌려주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펜을 들었다. 감히 새겨본다. 잊지 않겠노라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잊어야 마땅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청정 02-441-7317(미래7(희))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news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